

## 노인학대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심 미 영\* , 박 희 서\*\*

### The Effects of the Elder Abuse experience on mental health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

Mi-Young Sim\* , Hwie-Seo Park\*\*

#### 요 약

이 연구는 노인학대 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지지가 조절효과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이다. 연구를 위해 전국에 분포해 있는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했던 학대피해노인 270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피해경험과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연구결과, 노인학대 피해 경험은 피해노인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수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Keywords : 노인학대피해경험, 정신건강, 사회적지지.

####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y analys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lder abuse experience and mental health. For this study, we sampled 270 of the elder abuse experience who has received council services for the ag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elder abuse experience affect the mental health significantly and social support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 abuse experience and the mental health. This study suggested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n the base of the results.

▶ Keywords : the elderly abuse experience, mental health, social support.

---

제1저자 : 심미영, 교신저자 : 박희서

투고일 : 2014. 1. 29, 심사일 : 2014. 2. 3, 게재확정일: 2014. 2. 5

\*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 I. 서론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폭발적인 노인인구 증가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급속하게 고령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노인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준비되지 못한 노후문제는 자녀들에게 부담으로 남아 가족갈등과 노인학대로 나타나고 있다.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인들은 건강 상실, 경제적 어려움, 가족 내 역할상실, 사회적 소외문제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가족 안에서조차 소외를 경험하는 등 학대와 방임에 더욱 노출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인권보호와 학대예방사업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 24시간 신고접수 및 상담으로 학대피해노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중앙1개소와 24개 지방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대피해노인쉼터는 전국에 1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사태는 2005년 2,038명, 2007년 2,312명, 2009년 2,674명, 2011년 3,44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처럼 노인학대가 심각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학대피해노인들은 우울감, 적대감, 공포감, 불안감 속에서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고,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절망을 경험하며, 미해결된 감정적 과제가 노년기에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학대피해노인의 장애유형을 보면 신체장애는 415건(79.2%)이며, 정신장애는 109건(20.8%)을 나타내었고, 정신장애세부유형으로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0.4%, 정신분열 4.8%, 정동장애 0.4%, 우울장애 15.3%로 나타나고 있다[1]. 이러한 조사결과는 노인학대문제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대피해노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대피해경험을 지니고 있는 노인들에게 가족이나 친지, 이웃, 친구, 그리고 전문기관 등의 사회적 지지가 제대로 제공된다면 학대피해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를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대피해 노인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야기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고, 또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별로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학대피해 경험 노인을 대상으로 이에 대해 연구한 사례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피해가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2. 1. 노인학대

노인학대의 개념은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노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명백한 위해를 가하는 혐의의 개념에서부터, 노인의 인권보호를 전제로 하는 광의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노인학대는 신체학대에서부터 정서적 학대, 부적절한 대우, 방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복지법 제1조 2의 제4호에서도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학대는 노인문제를 가족이나 사회가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하고 방치하였을 때 나타나는 최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학대의 유형에 대해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2]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학대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등이다[1]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학대를 정서적 학대에 함께 묶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들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둘째, 정서적 학대(Verbal-Emotional Abuse)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셋째, 경제적 학대(Financial Abuse/ Exploitation)는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이다.

넷째, 방임(Neglect)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이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이다.

## 2.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과 관련된다. 사회적 지지라 함은 “개인 스스로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나 자신이 가치 있고 귀하며, 의사전달 가능한 상호조직망에 속해 있다고 믿게 하는 자원”이라 정의할 수 있다[3].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노인들에게 스트레스 증상을 예방하고,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며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4].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제 해결능력이 증가함과 아울러 우울과 분노 등 생활사건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 시키는 중재 요인으로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5][6][7]. 노년기는 생애 주기에서 사회적 지지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감정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노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지지를 4가지 기능적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① 돈, 물건 등 직접적으로 돕는 물질적 지지 ② 존경, 애정, 신뢰, 관심제공의 정서적지지 ③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적 지지 ④ 개인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충고 또는 부정하는 평가적 지지 등이 그것이다[9].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망 즉, 사회적 지지의 지지집단을 기준으로 가족, 친지, 이웃, 친구 등이 지원집단인 자연적 원조관계망에 의한 지지, 사회복지시설관계자, 공무원, 의사, 간호사 등으로 지원집단인 전문적 원조관계망에 의한 지지, 경로당, 친목모임, 사회단체 등이 지원집단인 상호적 원조관계망에 의한 지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유형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2. 3. 학대피해노인의 정신건강

노인학대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은 피해노인들의 정신적·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신건강에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노인의 정신건강은 신체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고, 삶의 질과 독립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기도 한다. 노인들은 신체기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위협, 배우자와 친구의 상실, 사회적 역할의 상실, 가족이나 사회로부터의 소외, 경제적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소외감, 무력감, 의존성 등이 생김으로써 정신건강이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학대 피해경험은 강도 높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정신건강상의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노인들은 내안위보다 가족의 화합을 우선으로 여기며,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학대피해를 감추거나 축소해나감으로써 노출되지 못하고 은폐될 수 있다[11]. 학대피해노인은 학습된 무기력, 정신분열, 죄의식, 수치심, 공포, 불안, 거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분노, 우울, 사회적 부적응 증상에 까지 이를 수 있다[12].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하위차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적대감(Hostility)으로, 이것은 분노, 공격성, 자극과민성, 격분, 울분 등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내포하는 사고, 감정 및 행동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우울증(Depression)으로, 이것은 삶에 대한 관심의 철수, 사회적 관심과 활동저하, 부정적 사고와 불행감, 신체적 약화와 활력감소, 동기의 결여, 인지적 역기능, 절망감 및 자살에 대한 생각 등으로 나타나는 기분이나 감정의 저조 등의 증상들이 포함된다.

셋째, 강박증(Obsessive-Compulsive)으로,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되풀이하게 되는 사고, 충동 및 행동 등 강박 증상을 반영한다.

넷째, 공포불안(Phobic Anxiety)으로, 장소 공포증의 정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특정한 사람, 장소, 대상 혹은 상황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불합리한 두려움이 생겨 회피행동을 하게 되는 상태를 평가한다.

다섯째, 불안(Anxiety)으로, 신경과민, 긴장, 초조, 두려움 및 불안과 관련된 신체적 증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섯째, 신체화(Somatization)로, 이것은 자율신경계의 영향 하에 있는 순환기, 소화기, 호흡기 및 기타 기관의 장애와 두통, 동통 등 신체적 기능이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곱째, 대인예민성(Interpersonal)으로,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편감, 부적합감 및 열등감 등을 측정하는 것이다.

여덟째, 편집증(Paranoid)으로, 이것은 편집증적 사고를 측정하는 것으로 투사적 사고, 적대감, 의심, 자율성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및 망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홉째, 정신증(Psychoticism)으로, 이것은 가벼운 대인관계의 문제로부터 정신병의 증상에 이르는 비교적 넓은 영역의 증상을 반영한다. 즉 고립, 철수, 분열성적 생활양식 및 환각과 사고전파와 같은 정신분열증의 일급증상이 포함된다.

### 2. 4. 선행연구

첫째, 노인학대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노인의 학대피해경험 후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노인의 학대피해경험정도가 심할수록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방임, 언어심리적 학대 순으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이존증감에는 방임만이, 우울에는 방임과 언어심리적 학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폭력피해를 경험한 여성노인은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더 우울하고 더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심한 폭력을 경험하면 더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3]. 학대피해 정도는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4] 학대피해노인이 받는 정신적 피해는 스스로 삶을 끝내고자 하는 심각한 생각으로까지 이르게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노인의 정신건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여성노인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임을 보여주었고[8][15], 사회적 지지는 노인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가족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노인의 우울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친구 지지 또한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치며, 우울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따라서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는 학대피해경험과 피해노인의 정신건강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수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대피해 경험과 노인의 정신건강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 III. 연구설계

### 3.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학대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이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작성하였는데 노인학대피해 경험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정신건강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수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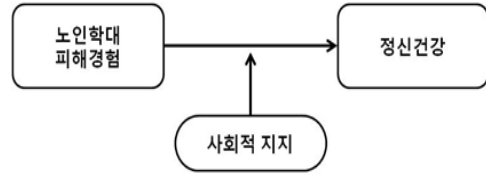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 3. 2. 가설 설정

표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가설 1)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많을수록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학대피해경험이 노인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적 원조관계망에 의한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학대피해경험이 노인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적 원조관계망에 의한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학대피해경험이 노인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적 원조관계망에 의한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지표는 노인학대 피해경험은 28문항에서 신체적 학대 7문항, 정서적 학대 7문항, 경제적 학대 8문항, 방임 6문항으로 학대피해경험을 한 문항에만 체크 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반복되는 4개의 문항을 자연적 관계망, 전문적 관계망, 상호적 관계망에 적용하였으며, 정신건강 문항은 47개의 문항으로 적대감 6문항, 우울증 4문항, 강박증 5문항, 공포불안 4문항, 불안 5문항, 신체화 6문항, 대인예민성 8문항, 편집증 4문항, 정신증 4문항이고 부가적 문항 1문항이 포함되었다.

## IV. 실증분석

### 4.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전국의 시·도에 소재 하고 있는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상담을 한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기관에 13매씩 총 312부의 설문지를 보내어 280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270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본의 추출방법은 할당표본 추출과 무작위표본 추출을 병행하였다.

### 4.2 측정도구 검증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노인학대피해경험,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 등 3개 요인을 확인하였다. 검증결과 KMO 지수는 0.877이고,  $\chi^2$ 는 5994.628, 자유도(df)는 496, 유의확률은 0.000으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분석은 Cronbach  $\alpha$ 계수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는바, 학대피해,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 등 3개의 측정항목에 대한 Cronbach  $\alpha$ 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의 측정도구 검증결과에서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방임,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와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며,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경우와 같은 정서적 학대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정신건강문제에서는 울적한 기분, 걱정, 자신도 견잡을 수 없는 울화감과 허무감 등의 우울증세, 신경이 예민하고 불안해 지는 불안증세,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는 적대감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 4.3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16.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는  $\chi^2$  값은 1877.902, 자유도(df)는 645,  $\chi^2$ 에 대한 p 값은 0.000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지수로 절대적합지수 GFI, 증분적합지수 NFI, IFI, TLI, CFI와 간명적합지수AGFI 등이 모두 1에 가까우며, RMR(원소간평균차이)값이 0.048로 0.05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RMSEA(근차평균제곱근차이) 값은 0.075로 0.08보다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표본자료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4 가설 검증

첫째, 상담받은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정신건강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인과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로계수가 0.28, C.R. 2.97, 유의확률 0.003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 '상담노인의 학대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 분석결과를 측정도구의 검증결과와 관련하여 분석해 보면,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처치를 하지 않는 방임, 대화를 하지 않고 무시하는 정서적 학대 등은 노인들의 우울 및 불안증세, 적대감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가설검증 결과  
Table 2. Summary of Findings in Hypothesis

가 설	경로계수		C.R.(t)	p	채택 여부
	비표준화	표준화			
학대피해경험→ 정신건강문제	0.276	0.230	2.97	.003**	채택

\* : p≤0.05, \*\* : p≤0.01

둘째,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경로계수가 .357, C.R 값이 2.814, 유의확률이 p=.005로 나타나,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경로계수가 -.051, C.R 값이 -.383, 유의확률이 p=.702로 나타나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유의확률은 p=0.0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셋째,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인 자연적 원조 관계망에 의한 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적 원조관계망이 낮은 경우에는 경로계수가 .35, C.R 값이 2.549, 유의확률이 p=.011로 나타나,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연적 원조관계망에 의한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경로계수가 -.006, C.R 값이 -.069, 유의확률이 p=.945로 나타나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적 원조관계망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유의확률은 p=0.000으로 나타나, 학대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넷째,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문적 원조관계망에 의한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기 위해 전문적 원조관계망에 의한 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적 원조관계망 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경로계수가 .137, C.R 값이 1.377, 유의확률이 p=.017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전문적 원조관계망 지지가 높은 경우에도 경로계수가 .483, C.R 값이 2.537, 유의확률이 p=.011로 나타나 모두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여부를 검증한 결과,  $\Delta \chi^2/df = 0.964$ , 조절효과 p값이 .463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적 원조관계망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다섯째,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인 상호원조관계망에 의한 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원조관계망이 낮은 경우에는 경로계수가 .403, C.R 값이 3.003, 유의확률이 p=.003로 나타나,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호원조관계망에 의한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경로계수가 .122, C.R 값이 .754, 유의확률이 p=.451로 나타나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원조관계망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유의확률은 p=0.000으로 나타나,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원조관계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표 3.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Table 3. Analytical Results of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인과 관계	조절 변수	집단	경로 계수	C.R.	p값	비제약/ 제약모형 ( $\chi^2/df$ )	$\Delta \chi^2/df$	조절 효과 p값	가설 검증
피해 경험 →	자연적 원조 관계망	저	.35	2.549	.011	1116.38 /48 ;	4.969	.000	채택
		고	-.006	-.069	.945	1212.87 /49			
	전문적 원조 관계망	저	.137	1.377	.017	1249.77/48 ;	.964	.463	기각
		고	.483	2.537	.011	1299.01 /49			
정신 건강 문제	상호 원조 관계망	저	.403	3.003	.003	1183.78 /48 ;	5.967	.000	채택
		고	.122	.754	.451	1280.44 /49			
	사회 지지 전체	저	.357	2.814	.005	1254.77 /48 ;	5.992	.000	채택
		고	-.051	-.383	.702	1354.094 /49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국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학대피해상담을 받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영향이 사회적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해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많을수록 노인의 정신건강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사회적 지지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를 하위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자연적원조관계망과 상호원조관계망에 의한 지지 여하에 따라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적 원조관계망에 의한 지지는 노인의 학대피해경험과 상호원조관계망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검증결과, 학대피해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는 의료적 방임,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하며 소외시키는 정서적 학대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구성요소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정신건강문제에서는 울적한 기분, 걱정, 자신도 견잡을 수 없는 우울감과 허무감 등의 우울증세, 신경이 예민하고 불안해 지는 불안증세,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는 적대감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적 방임과 정서적 학대 경험 등은 노인의 우울증세, 불안증세, 적대감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며(18)(19), 이것은 노인들의 학대피해경험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은 악화됨을 의미하므로 노인에 대한 학대피해 예방방안의 모색이 절실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둘째,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낮은 경우에 비해 학대피해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대피해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피해노인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데 유용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대피해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인 자연적 원조 관계망 즉,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에 의한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연적 원조관계망에 의한 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학대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반대로 자연적 원조관계망에 의한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학대피해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대피해 노인들에 대한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의 지지는 피해노인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데 유용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대피해 노인들에 대한 자연적 원조관계망에 의한 지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가족 관련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적 원조 관계망 즉,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공무원, 의사, 간호사 등에 의한 지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문적 원조 관계망에 의한 지지가 학대피해경험에 따른 정신건강의 문제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섯째, 노인의 학대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인 상호적 원조관계망 즉, 경로당, 친목모임, 사회단체 등에 의한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원조관계망에 의한 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학대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반대로 상호원조관계망에 의한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학대피해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대피해 노인들에 대한 경로당, 친목모임, 사회단체 등에 의한 지지는 피해노인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데 유용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로당, 친목모임, 사회단체 활동 등을 활성화시켜서 학대피해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개발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한 표본추출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지만 학대피해노인들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경우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 설문조사 방식만으로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2).

- [2]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2008), Survey on Human Rights of Vulnerable Social Group.
- [3]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pp. 300-314
- [4] Murrell 등(1992) Murrell, S.A, Norris F.H, and Chipley Q,T "Functional versus structural social support, desirable events, and positive affect in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7(4), 562-570, 1992
- [5] Lee Gyeongsook (2011),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family function on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and old-aged for the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6, No.4, pp. 244-252.
- [6] Bae, Jiyeon. Kim, Wonhyung. Yoon, Kyeong-a (2005). "Depression, suicidal thoughts and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25,(3), 59-73.
- [7] Lee, Hyunwoo (2011). "A Study on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Residing at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e Graduate School of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 [8] Kim Kyungwoo, Choi kunsik (2012) "Research on Impacts of Depression Among the Aged in the Long-Term Car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17, No.11, pp. 180-188.
- [9] Park, Jiwon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 [10] Sohn, Esther (2001). "A Study on How the Experience of Abuse Old Females Affects their Mental Health"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 [11] Kim, Mooim (2010).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social support between the elder abuse and the elder depression"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Dong-A University.

- [12] Wolf, R. 2000. 「Special Research Review Section: Emotional Distress and Elder Abuse」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Newsletter, January.
- [13] Kim, Jacyop. Kim, Heesoo (2003). "Conjugal Violence and Mental Health of Korean Elderly Wome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2) 51~65.
- [14] Bae, Jinhee (2009). "Factors Affecting Suicide Idea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4 pp49-70.
- [15] Park, Mijin (2007). "Buffering effects of Strengths and Social Support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Wom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2, pp197-211.
- [16] Bae, Jiyeon. Kim, Wonhyung. Yoon, Kyeong-a (2005). "Depression, suicidal thoughts and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5, (3), 59-73.
- [17] Shin, Kyoungin (2013). "The effect of Ageism Experience on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Womans University.
- [18] Hwang, Hyun-Mee(2011),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Abused Experience to the Mental Health of the Low-Incom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Social Wo가 Practice & Research 8
- [19] Lim, Koo-Won(2011), "The Study on Effects of a Geriatric Depression by Elder Abuse" Correction Welfare Study 21.

**저 자 소 개**



**심 미 영**  
 2011년 :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2011년 2월 ~현재 :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과장  
 관심분야 : 가족복지, 노인복지,  
 상담심리, 사회복지실천  
 Email : synsmt56@daum.net



**박 희 서**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1989년~현재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행정, 마케팅,  
 Email : hsark@chosun.ac.kr